광주 노후 아파트 안전 '흔들'

건설경기 침체 … 25년 이상 재건축 대상 시공사 선정 못해

공적재원 투입 등 대책 시급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25년 이상된 광주지역 노후 아파트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에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노후화가 심각한 일부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인가를 받은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4~5년 뒤에는 이 지역 상당수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인 안전진단 D등급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에 의한 재건축만이 아니라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적재원을 투입해 이들 아파트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는 광산구 송정동 주공아파트(건축연도 1983년), 서구 화정주공아파트(1982년), 쌍촌동 쌍촌아파트(1975년), 남구 주월동 장미아파트(1981년) 등 모두 4곳이다. 이들 아파트들은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까지 설립됐지만 재건축에 나설 건설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아파트 외에도 재난관리법상 거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관리대상이 된 서구 화정동 영화아파트(1983년)나 삼익아파트(1979년) 등은 아예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일한 해법인 재건축 대상에서마저 제외된 상태다.

이 가운데 서구 화정동 영화아파트 한 동은 지난 2005년 즉시 재건축이 필요한 E등급으로 지정됐으나, 자치구가 매달 한 차례 위험수준을 진단할 뿐 별다른 대책 없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재건축 이외에는 이들 아파트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병욱(57) 송정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수도관이나 하수관 등 모든 설비가 녹슬어 다시 쓸 수 없을 정도의 환경에서 언제나 시공업체가 나타날 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 생활의 질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으며, 행정당국에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시는 재난관리법상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의 아파트는 방재관리과에서 안전을 점검하고, 건축주택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들 노후 아파트들을 관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 노후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위한 공적재원을 마련해 이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한 교수는 "현재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정책은 전적으로 수도권의 상황에만 맞춰진 것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적 부담을 늘려가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천연색소로 빚었어요" 광주시 북구는 11일 삼각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관내 저소득층 어린이 45명을 초청해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천연색소를 이용해 갖가지 과일 모양의 송편을 빚는 어린이들의 표정이 밝고 진지하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의사·교사 등 지도층 인터넷서 '물뽕' 구매

남부경찰 44명 입건

교육계 등 지도층 인사가 포함된 수십명이 여성 최음제로 알려진 신종마약 GHB(속칭 '물뽕')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이들 중엔 의사와 교사, 대학교 직원 등이 포함됐다.

광주남부경찰은 11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종마약인 GHB를 구입한 의사 김모(37·광주시 북구)씨 등 4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입건된 초등학교 교사 2명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입건 사실과 사건개요를 통보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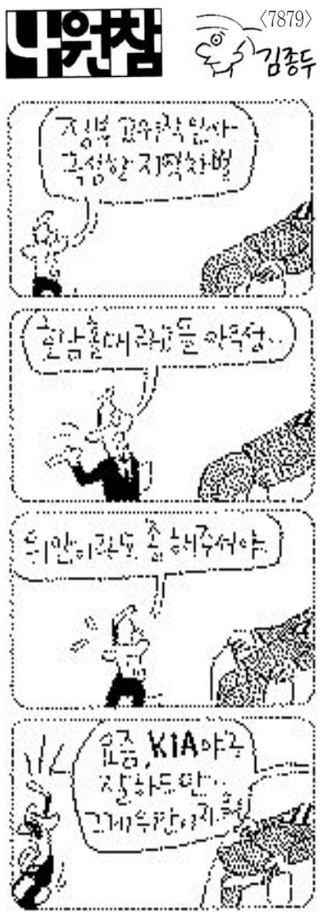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 10일부터 한 달사이 이모(34·부산시)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ghb822.com)를 통해 GHB를 구입하거나 구입하려 한 혐의다. 이씨는 GHB를 30cc 크기의 병에 담아 병당 5만원씩 판매했다.

이씨는 중국과 태국 등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무작위로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주문뒤 입금한 44명 중 1명에게만 GHB 1병을 보냈으며,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을 의뢰한 결과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 이씨는 GHB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신상정보를 컴퓨터나 문서 등에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구입자를 안심시켰으나, 경찰은 입금된 금융계좌와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입금자 44명 등 주문자 957명의 기록을 확보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판매와 구입 등이 금지된 GHB는 술에 타 마시거나 투약하면 기억을 잃고 의식불명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영란 광주남부경찰서 보안계장은 "입건된 사람들 중 의사를 비롯한 극히 일부만 위법 사실을 알았다"며 "구매자를 현혹시킨 뒤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인 경우가 많고, 자칫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공금 횡령 사회적기업 전 대표 징역형

거액의 국고지원금을 횡령한 광주지역 모 사회적기업의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이은혜 판사는 11일 노동부 지원금 등 법인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M사회적기업 전 대표 한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법인 재산을 매각해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법인 직원이 아닌 지인에게 월급을 수차례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용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M업체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2월 노동부의 지원금으로 가게를 임대한 뒤 1년 만에 경영난을 이유로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자신의 빚 5천만원을 갚는 등 법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여자친구에게 7개월간 월급 명목으로 500만원 가량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찰 前 기획실장 사기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11일 사찰 건립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전남지역 모 사찰 전 기획실장 양모(5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해 1월 8일 광주시 남구 모 호텔 커피숍에서 B씨에게 "대웅전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B씨로부터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순찰 경찰, 수배자 잡고 자살 막고

쌍나팔

○…경찰이 순찰을 돌던중 수배자를 검거하고 자살까지 막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화제.

○…11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박형수(43) 경사와 류필중(38) 순경이 무안군 현경면 한 미꾸라지 양식장 주변에서 순찰을 돌던중 바구니에 뭔가를 담은 채 허겁지겁 걸어가던 A(48)씨를 신원조회를 통해 검거.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는데,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양식장 주인 B(61)씨의 집을 찾아다가 때마침 농약을 마시려던 B씨를 설득해 자살을 방지.

○…박 경사는 "수배자도 잡고, 소중한 생명도 구하게 돼 기쁘다"고 흐뭇.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인터넷 뱅킹' 부정계좌 6개 압수수색

동부경찰 본격 수사

인터넷 뱅킹을 통해 수천만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뒤 인출된 사건〈광주일보 8월 11일자 6면〉을 수사중인 광주동부경찰은 11일 이체된 6개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고, 이들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된 돈은 L씨, Y씨 등 2명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들 계좌는 소위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찰은 특히 용의자들이 피해자 김모(54·무역업) 대표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기 전, 김 대표의 또 다른 금융기관 신용카드에서 1천만원을 문제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실과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용의자들이 김 대표의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대상을 좁혀나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망을 해킹해 얻은 개인 금융정보를 토대로 한국인 86명의 계좌에서 4억5천만원을 빼돌린 조선족 해커 2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붙잡힌 사건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의 금융정보를 알만한 주변인에 대한 조사와 해당 업체,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30~100㎜ 비

태풍 '모라꼿'에서 약해진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11일 광주·전남지역에는 최고 81㎜(완도)의 비가 내렸다.

12일에도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80㎜.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리산 등 산지와 해안지역 일부에는 100㎜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오후 8시 현재 여수와 진도 등 전남지역 13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목포와 영암 등 7개 시·군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져있다. 이로 인해 이날 전남지역 주요 도서를 연결하는 11개 항로 18척의 배가 운항이 중단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